

# 복지 사각없는 '경북 만들기' 팔 걸었다

### 포스트 코로나 맞춰 위기 가구 적극 발굴지원키로 마음안심서비스 앱·우리동네지킴이·희망톡 개설

경상북도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23개 시군과 손잡고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제로(ZERO) 경북' 만들기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구가 증가하면서 위기 가구 적극 발굴과 신속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 해소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 지원 조치이다.

이를 위해 상시로 작동하는 촘촘한 발굴체계 구축, 마음안심서비스 앱 보급 운영, 우리동네 지킴이 사업단 운영, 카카오톡 채널 희망톡(TALK) 개설, 사각지대 발굴의 날 운영,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한다.

상시로 작동하는 촘촘한 발굴체계 구축은 지금까지 산재해 있는 사각지대 발굴 민간 신고 조직을 명예사회복지공무

원으로 일원화하고 공공조직과 민간기관의 협업을 통해 365일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경상북도 마음안심 서비스 앱을 23개 전 시군에 즉시 보급해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보호자 없이 혼자 사는 위기대응 취약 가구에 대해 실시간 안전을 확인하고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마음안심 서비스는 위기대응 취약 1인 가구에 해당 앱을 설치하고 지정시간(최소 12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했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예측하고 미리 등록된 다수의 보호자에게 구호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해 빠른 위기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동네 지킴이 사업단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참여자로



이철우 지사가 독거노인 가구를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 경상북도

이뤄진 공익형 자활사업단을 만들어 현장방문을 통해 숨은 위기 가구를 한 가구라도 더 찾아내 위기에 방지되는 일이 없도록 위기 상황 조기발견과 신속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단 규모는 개소당 5명 내외로 구성하고 올해 7월부터 5개소를 시범운영 한

다. 예산은 개소당 5000만원으로 2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언제 어디서나 생활이 어려운 이웃 발견 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 '희망톡(TALK)'을 시군별로 개설한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시군 희망톡을 검색해 친구추가를 하면 자동으로 가

입되고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상시발견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채널을 통해 복지서비스 관련정보도 제공한다.

한편 원룸 밀집지역, 역터미널 주변, 공원 등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복지서비스 상담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날'을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전 시군에서 일제히 운영해 주민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발굴한 사각지대 가구에 대해 긴급복지 지원, 기초생활보장장급여지원 통합사례관리 등 공적급여를 시행하고 제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초록우산,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기관의 자원을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의 충격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매우 치명적이다"며 "엔데믹 시대 사각지대 전면 해소를 일차적 과제로 삼아 선 도민 중심의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 부산 개별주택가격, 전년비 8.35% '쑥쑥'

### 수영구, 재개발 기대심리... 13.53%로 가장 많이 올라 주택가격 이의 있을 땐 30일까지 이의 신청서 제출

부산시가 최근 16만3025호의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국 상승률 6.56%보다 1.79%가 높은 8.35%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상승률 8.14%보다 0.21%가 높은 수치이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국 특별광역시도 개별주택 공사가격은 서울시의 상승

률이 9.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부산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주도 7.38%, 광주시 7.03%, 울산시는 4.55%, 경상남도는 2.94%의 상승률을 보였다.

부산시 16개 구·군에서는 수영구의 상승률이 13.53%로 가장 높고, 연제구

12.77%, 해운대구 11.56%, 남구 10.66%, 부산진구 10.22%, 강서구는 3.68%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시가 전국에서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 내에서도 높은 상승률을 보인 수영구 등은 재개발구역 및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는 지역들로, 해당 지역들의 재개발 사업 등 추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기대심리가 가격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주택가격은 작년 11월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가격열람 접수된 의견을 검증한 후 각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누리집(kras.go.kr)'을 통하거나, 구·군 세무부서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 구·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6월 23일까지 결정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을 6월 24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4월 29일부터 공동주택공사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ityprice.kr:1644-2828)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월 24일에 조정·공시된다.

개발 및 공동주택가격은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김종창 기자 jckim@skyedaily.com



### 에어부산, 괌 하늘길 '활짝'... 주 2회 운항 예약자 수 급증...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활성화 기대

지역 항공사 에어부산이 지난달 30일 부산발 괌 BX614편을 시작으로 부산-괌 노선의 본격적인 재운항에 나섰다.

에어부산은 부산-괌 노선을 이달부터 매주 화요일, 토요일 주 2회 운항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괌 노선 운항편은 김해국제공항에서 오전 8시 5분에 출발해 현지공항에 오후 1시 5분 도착한다.

괌 현지공항에서는 오후 3시 5분에 출발해 김해국제공항에 저녁 6시 30분 도착 일정으로 운항된다.

비행시간은 약 4시간이 소요되며, 220석 규모의 신형 항공기인 A321neo가 투입된다.

에어부산은 코로나 확진자 수 감소,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등으로 해외여행 재개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괌을 비롯한 해외여행 예약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괌은 신혼여행 수요가 많은 여행지로 허니문 여행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MZ 세대 사이에서 골프가 인기를 끌면서 골프여행 수요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가장 선호되는 해외 여행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항공편 예약자 수는 121명으로 올해 1월 평균 탑승객 수 13명에 비해 10배 가량 증가했다.

에어부산은 해외여행객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부산지역 여행업체 고사를 막고자 방역당국 등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작년 11월 부산-괌 노선을 어렵게 운항 재개했다. 또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불과 평균 10명대의 승객을 태우고 운항을 지속하다 부득이 2월부터 단항 조치를 취해 왔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안전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은 괌에 에어부산을 이용해 다녀오셔서 역눌렸던 해외여행의 갈증을 깔끔히 해소하시길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괌 입국 시 승객은 백신 접종 완료 영문 증명서, 출발 1일 전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음성 확인 증명서 등 서류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김종창 기자 jckim@skyedaily.com

## 봉화, 지방세정 종합평가 '엄지척'... 우수상 수상

### 납세의무자 편의시책 개발 꾸준한 지방세수 확충 성과

경북 봉화군은 지난달 29일 경북도청 안민관에서 열린 '2022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우수상 수상으로 기관 표창과 시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매년 23개 시군 대상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세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시행한다.

평가 분야는 지방세 징수실적, 체납액 징수실적, 지방세수 확충실적, 세정운영 기반조성 등 4개 분야 24개 항목에 대한 성과가 기준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2022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 후 봉화군정 재정과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봉화군

봉화군의 이번 수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자의 편의시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도입해 지방세수 확충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정업무 수행의 결과이자 군정 재정과 및 읍·면·전 직원의 노력의 결과로 평가받는다.

임기수 재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이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세수확보를 위한 직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성실한 납세에 따른 것이다"며 "앞으로도 신규 세원 발굴 등 자주제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 '영주사랑복지몰' 입점·사업설명회 성료

### 사업자 160명 참석... 새로운 판로 개척 통해 신규 고객 확보

경북 영주시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영주사랑복지몰 입점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유통환경의 변화, 특히 비대면 거래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비대면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날 설명회는 관내 온누리전통시장 가

맹점주를 포함한 사업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주사랑복지몰 소개 △복합점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번 온라인 입점 설명회를 시작으로 새로운 판로개척에 대해 고민하는 영주시 관내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유통채널과 신규고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분기별 1회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영주사랑복지몰'(https://yilove.togetherwel.co.kr/)은 영주시가 지역 우수 상품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통한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1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오픈한 시민전용 온라인 후생복지관으로 복지몰의 전체 회원 수는 전국 1700개사 160만 명이다.

강성의 영주시장 관대행은 "영주사랑복지몰 온라인 입점을 새로운 고객층 확보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며 "시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스 '가정의 달' 대박 할인전 진행

경상북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스'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인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소중한 이들에게 고마움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위축된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사이스에서는 5월 말까지 제철 과일, 건강식품 등의 선물 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기획전(4.15 ~ 5.31 : 선물 세트 할인, 최대50%)을 마련했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기념일에 맞춰 기념일별 맞춤형 제품 반박 할인 이벤트(기념일별 맞춤형 제품할인 이벤트, 최대 40%)도 한다.

또 영주장날(4.13~5.31 : 선물 세트 할인(최대 45%), 꾸러미 제품 판매) 경주물(4.27~5.18 : 전 품목 20% 할인, 신규회원 쿠폰지급), 칠곡물(5.2~5.31 : 전 품목 20% 할인, 신규회원 쿠폰지급) 등 시군 쇼핑몰에서도 선물 세트 판매, 품목별 전 품목 할인행사, 신규회원 쿠폰지급 등 이벤트를 열고 영양산나물 축제 온라인 특판전(4.27~5.20 : 영양산나물축제연계 할인 이벤트(최대 20%)개최) 등 시군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김중수 경상북도 농특산물유통국장은 "이번 가정의 달 특판전이 가족, 친구 등 소중한 분들에게 고마움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그간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특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김중수 경상북도 농특산물유통국장은 "이번 가정의 달 특판전이 가족, 친구 등 소중한 분들에게 고마움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그간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특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의병장 심성지 선생 학술발표회가 열렸다. 청송군

## 청송군, 의병장 심성지 선생 '생애·학문' 주제 학술발표회

경북 청송군은 '소류 심성지 선생의 생애와 학문'을 주제로 한 학술발표회를 지난달 29일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성균관유도회 청송군지부가 주관한 이번 학술발표회는 황만기 안동대 퇴계학연구소 연구교수와 권영배 계명대 객원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소류 심성지의 삶과 학문, 소류 심성지와 청송지역 의병활동을 주제로 심도 깊은 발표회로 진행했다.

심성지 의병장의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사행(士行), 호는 소류(小流)이다. 1896년 3월 16일 창의한 청송의진 창의장 활동을 시작으로 청송을 중심지역으로 의병활동을 벌인 자랑스러운 청송의 의병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1895년 5월 14일에는 안덕 갑은리 전투에서 일본군에 맞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조정의 명에 의해 의병 해산 후 노년에는 주로 산정에 은거하면서 학문에만 몰두하다가 1904년 7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러한 공로로 심 선생은 1995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고 유작으로는 '적원일기'와 '소류문집' 등이 있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